

# 국민 10명 중 6명 “5·18 특별법 찬성”

###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보수층만 반대 50% 넘어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5·18 왜곡 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5·18 특별법을 만드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5·18 특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6%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3%, 모르거나 무응답은 9.1%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2월22일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

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 166명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패스트트랙 합의 시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 85.3%, 중도층 62.4%, 보수층 29.8%가 5·18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다. 보수층은 57.5%가 5·18 특별법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98.1%, 더불어민주당 88.5%, 민주평화당 73.7%, 바른미래당 45.7%, 자유한국당 18.6%가 5·18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층은 73.9%가 법 개정에 반대하면 정의당 지지층의 반대는 0%였다.

지역별로는 제주 82.4%, 호남 75.2%, 경기·인천 65.5%, 대구·경북 59.1%, 서울 58.7%, 부산·울산·경남 53.2%, 대전·충청·세종 50.7%, 강원 44.0% 순으로 법 개정에 찬성했다.

세대별 찬성률은 40대 72.2%, 50대 65.9%, 30대 64.9%, 20대 59.7%, 60대 이상 45.7% 순이었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4%다.

유대원기자 ydy2132@srb.co.kr

# 내달 하순 8번째 한미 정상회담 열린다

### 트럼프, G20 전후 방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16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11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8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방한이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며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성사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8~29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형식과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앞으로 한미간 외교 경로를 통해 합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정상이 방한할 때는 (방식이) 국빈, 실무, 공식으로 나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지는 한미간에 논의 중이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갈래길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은 그제 정해져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정보 등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광주시의회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광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진실 규명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 '막말 논란' 한국당 지지율 4.1%p 급락

### 리얼미터 조사 결과 '30.2%' 민주당, 4.6%p 상승 '43.3%'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혐오 표현' 등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2명(응답률 6.5%)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4.6%p가 오른 43.3%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4주간 상승세를 기록해온 한국당 지지율은 30.2%로 4.1%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호남과 대구·경북, 서울, 경기, 인천 등 거의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3주차(44.8%)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은 문 대통령 지지자 혐오 표현 논란에 이어 청와대와 한국당의 국정 상설협의체 및 여야 대표 회동 공방,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및 봉축식 예법 논란, 전두환 '5·18 광주 사살명령 의혹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3%p가 오른 48.9%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5.8%에 보다 3.1%p로 앞섰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도원기자 repo333@srb.co.kr

# 광주-서울시의회, 5·18 진실규명 연대 다짐

### "오월 현안 해결 위해 함께 노력"

광주시의회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진실 규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오월어머니들을 위로한 후 광주시의회를 찾아 양 시의회 의원들간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섭 의장은 "5·18 망언자 퇴출과 5·18 특별법 제정, 옛 전남도청 복원 등 오월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5·18 왜곡·편향에 강력히 대응했다.

'5·18 망언' 자유한국당 소속 3명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마련하고 규탄대회를

진행해 왔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5·18 정신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정의로움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5·18, 세계의 5·18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대원기자 ydy2132@srb.co.kr

# 정부, '미군 기밀문서' 확보 방안 모색

### 천정배 의원, 외교부 질의 통해 확인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 열쇠로 등장한 '미군 기밀문서'를 제공받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민주당·광주 서구)은 16일 본보와 통화에서 외교부에 미군 기밀문서 공개 여부를 문의한 결과 "(외교부가)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가

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밝혔다.

천 의원은 "미군 기록물 공개는 미 정부가 관련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미 5·18 관련 기록물 공개 또는 전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의 검토를 거쳐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 캠핑카 주문 제작·판매

푸드트럭 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회생·중흥·수입·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1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 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 전문업체 - 해성익스프레스 전문 일반이사 보관짐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전국 이동 가능 ☎ 062)522-2424 전담 전 지역 ☎ 061)375-8824

※ 전액은 무료이며 여사행님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문실피니시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 LG 익스프레스

### 이사 마무리시 스템청소 서비스

- 선반·가구·싱크대·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

###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파수꾼 유)오케이철거종합건축

오케이철거종합건축은 스페셜/석면철거 정부허가 업체입니다. 민물과 상수원을 가업이념으로 깨끗한 뒷처리를 전제로 운영합니다.

- ▲ 스페셜 석면 철거 전문
- ▲ 공장 / 주택 / 상가 철거
- ▲ 집수리 및 미니포크레인(압박기 보유)
- ▲ 인력상당환영 / 모든 중고 고가매입

H. 010-2595-2116 ☎ 062)952-2117, 956-2116 Fax. 062)942-2116

http://shan.lguplusappstore.co.kr

신세계백화점 협력업체

보증보험가입업체 관허 25호

## 새한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보관이사

-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방문 견적 상담해 드립니다.
- 에어컨, 비데, 정수기 등 무료 분리 서비스
- 커튼, 액자, 버티컬, 블라인드 등 무료 탈부착
- 각종 가구 먼지 제거 등 확실한 마무리 정리정돈

대표 전화 269-2222

문의 전화 080-269-5000

광주 261-8600 서구 364-8600 남구 653-5524 북구 511-8600 광산 941-8524 군인 269-5544